

희망과 부조리 사이, 예술로 성찰하는 인간 존재



왼쪽부터 지하층 '오늘도 비가', 1층 '길 위에서', 2층 '그림에도' 색션 전시 전경

예술공간 집 주최 '아침놀' 전시 리뷰

복합문화공간 김넛과서 15명 작가 65점 선배 참여형 설치작부터 회화·미디어까지 전관 구성

광주 동구의 오래된 골목에 예술의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다. 복합문화공간 '김넛과'에서 열리는 전시 '아침놀'이 오는 9월15일까지 열린다.

전시 제목 '아침놀'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 하늘이 붉게 물드는 순간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내면과 삶을 예술로 드러내고자 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예술공간 집이 주최하고 독립기획자 양초롱이 기획을 맡았다.

인구감소지역인 광주 동구의 문화 공간 '김넛과' 전관을 활용해 지역성과 예술 실천의 관계를 민간 주도로 풀어낸 기획

전이다. 특히 참여 작가 대다수가 이번 전시를 위해 신작을 제작해 출품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전시에는 총 15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입체,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65점을 선보인다. 동시대 삶과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담은 결과물이다.

전시는 건물의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를 3개 색션으로 나눴다.

지하 공간 '오늘도 비가' 색션은 박정용의 산업 폐자재를 활용한 설치 작업, 이연숙의 체험형 석고 설치, 유지원의 조형 작업, 권세진·하승원의 회화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이연숙 작가의 체험형 석고 설치작품은 관람객이 발로 밟고 지나가며 작품에 직접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구성돼 강한 인상을 남긴다. 부서진 기억과 감정, 회복 불가능한 상처의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이 작품은 전시의 메시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전하는 작업 중 하나다.

박정용 작가는 철관 겹테기와 폐자재 등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에어컨 파이프와 목화를 결합한 설치 작업은 '어머

니의 숨'이라는 주제로 생명과 죽음을 떠올려 보게 한다. 산업 폐기물이 다시 생명의 상징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조형적으로 풀어낸다.

1층 '길 위에서' 색션에선 김영진의 유리컵 사진 작업을 시작으로 박우인의 회화 연작, 김자이의 섬유 설치, 정승원의 판화 작업 등이 전시된다.

이 중 김자이의 작품은 천과 뜨개질 도구를 활용해 관람객이 직접 실을 엮어가는 참여형 구조로 설계돼 노동과 치유, 공동체의 의미를 함께 환기한다.

박우인의 회화는 울타리를 넘어서며 되돌아보는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는 구성을 통해 삶의 궤적과 불확실한 전환의 순간을 직관적으로 묘사한다.

2층 '그림에도' 색션은 하루.K의 회화, 신호윤의 설치, 박치호의 신작 회화, 이인성의 회화, 임용현의 미디어아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호윤은 언어의 폭력성과 소통의 부재를 주제로 수화의 제스처를 모티브로 한 설치작업을 선보인다. 말이라는 행위

가 지닌 상처와 오해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수어의 물성과 조형성을 통해 새로운 언어적 감각을 제시한다.

또한 하루.K는 신화적 이미지와 이상향에 관한 상상력을 결합한 회화 작업을 선보이며, 박치호는 신체를 통해 사회와 인간 존재를 상징적으로 조명한다.

양초롱 기획자는 "이번 전시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조명하고자 했다"며 "삶의 반복과 단절, 감각의 파편 속에서 '문득' 마주하는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관람객 각자의 방식으로 떠오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 기간 동안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은 매주 수·목·금·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총 8회 열린다.

특히 김영진·김자이·정승원 작가가 진행하는 체험형 수업은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시도다. 오는 9월13일 동구 미로센터에서는 '부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예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전시 관련 문의는 예술공간 집 (062-233-3342)으로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2025 동아시아 문학상 수상자에 중국 작가 황누보

2025년 동아시아 문학상의 첫 수상자로 중국 작가 황누보(黃怒波)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히말라야 최고봉을 배경으로 산악인들의 도전과 생사를 넘나드는 여정, 개혁·개방 이후 중국 기업가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담은 장편소설 '초모량마'다.

시상식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국경을 넘는 문학, 마음을 잇는 언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소설가협회, 작가포럼, 시네마클럽,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 서밋박스, ㈜봄이아트북스가 공동 협력했다. 국내 작가, 번역가, 영화인, 방송인, 출판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동아시아 문학상은 한국·중국·일본·대만의 우수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보편적 감수성을 조명하고자 제정됐다. 이상문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조훈현 국

수, 호사가 유지 세종대 교수, 티엔 위안 일본 조사이대학 교수, 방현성 중앙대 교수, 조나단 스티링 오클라호마대 교수, 양준환 단국대 교수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문학평론가 이덕화 교수가 서평을 발표했다.

수상 소감에서 황누보는 "중국은 큰 나라지만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렵다. 여러분들의 연대가 보기 좋다. 오늘 자리처럼 동아시아 문학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세계로 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누보는 중국 간쑤성 란저우 출신으로, 베이징대 중문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마요'로 등단했다. 이후 중문그룹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가로 베이징 대중사 국제광장 프로젝트와 황산 홍춘 개발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베이징대에 10억 위안을 기부한 자선사업가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세계 7대륙 최고봉과 남북극을 모두 등



이상문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과 수상자 황누보(오른쪽)

정한 탐험가이기도 하며, 최근 일본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한 데 이어 올해 말에는 한국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어린이 시선으로 전하는 미술 이야기

광주시립미술관, 오늘부터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립미술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도슨트 활동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어린이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 전시와 연계해, 도슨트 양성교육을 마친 어린이들이 직접 작품 해설에 나선다.

이번 어린이 도슨트 활동은 5일부터 29일까지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된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운영되며, 어린이 도슨트들은 또래 관람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작품 해설을 제공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보조하게 된다.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전은 '점, 선, 면'이라는 디자인의 기본 조형 요소를 중심으로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와 조형 감각을 키우는 놀이활동형 전시다.

전시 공간을 탐험하며 작품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관람 중심을 넘어 어린이가 전시의 일방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가 되는 경험을 지향한다.

기획 단계부터 작품이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 아닌, 공간 자체가 작업이자 작품이 되는 '공간+행위+과정=작품'의 개념을 바탕으로 참여형 전시를 구성해왔다.

윤의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어린이 도슨트 활동은 전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미술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전시와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천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